

이슈브리프

No. 2025-02(S)

조건부 문항을 통해 본 핵무장 여론

피터 리 연구위원

강충구 책임연구원

2025-06-16

이 이슈브리프는 한국 내 자체 핵무장 및 미국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여론을 조건부 문항을 이용한 조사 결과로 분석했다. 이에는 핵무장에 따른 잠재 비용을 다섯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설계한 문항을 사용했다. 한국인의 북핵 위협 인식이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르고,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가 약화된 상황에서 응답자 다수는 잠재 비용 조건을 제시한 경우에도 자체 핵무장 및 전술핵 재배치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25년 3월 자체 핵무장, 미국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한국인은 각각 76.2%, 66.3%가 지지했다. 핵무장에 따른 잠재 비용에 기초해 구성한 정보를 제시한 경우에도, 각 핵무장 방안에 대한 지지는 일부 감소했지만 대부분 과반 이상이 핵무장을 지지했다. 한국인은 모호하거나 추상적 비용보다 자신의 거주지에 핵시설이나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이고 직접적 영향을 주는 조건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주거지 인근에 미국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는 조건에는 26.6%p가 지지를 철회해 유일하게 반대가 지지를 앞섰다.

표면적으로 자체 핵무장에 대한 지지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대중이 실제 소요될 복합 비용(경제제재, 주한미군 철수, 핵처리시설 건설 등)을 감안하지 않고 답한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동맹체제 내 미국 전술핵무기 재배치는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여겨진다. 향후 불가피하게 핵무장을 추진한다면, 유사시 반입이 가능한 저장시설을 확보하는 연성 배치 방식으로 미국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안보 불안과 훼손된 미국 확장억제 신뢰

북한 핵 위협이 중국, 러시아발 안보 위협에 더해지면서 한국인의 안보 불안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 한미 양국은 확장억제 강화를 강조했지만, 이는 대중에 큰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 실제 바이든 행정부의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NCG)'은 전문가나 정책결정자 사이에선 일정 효과가 있었지만, 대중의 인식을 바꾸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동맹을 경시하고,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인정하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5년 3월 본원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74.2%는 트럼프 2기 미국의 안보공약이 약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가 구조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근거다. 여기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군사 위협은 이 위기감을 축적하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자체 핵무장, 또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대중의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2025년 3월 한국인의 76.2%는 자체 핵무장(반대: 23.8%)을, 66.3%는 미국 전술핵의 재배치를 지지(반대: 33.7%)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처럼 높은 핵무장 지지가 실제에 가까운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됐다. 핵무장은 단지 핵무기를 갖고 싶다는 추상적 바람이 아니라, 경제제재, 외교적 고립, 주한미군 철수나 핵시설 설치 등에 따른 위협과 같은 여러 차원의 대가를 수반해서다. 이에 근거해, 일부 전문가들은 비확산 관점에서 한국 내 핵무장 여론을 억제하기 위해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실질 비용과 위험을 대중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의 국내 핵무장 여론은 단순히 핵무장을 선호한다는 뜻이 아니라, 억제 전략과 한미 공조 체계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크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NATO) 탈퇴를 언급하면서 유럽 일부 국가에서 '핵 자강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결국, 한반도는 물론 미국의 동맹국 다수가 미국 확장억제 신뢰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품으며 점차 핵무장을 현실적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자체 핵무장 여론

2025년 3월, 본원은 한국 핵무장 여론의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의 다섯가지 조건부 문항을 구성했다. 자체 핵무장과 미국 전술핵무기 재배치는 한미동맹 관점에서 다른 전략적 선택이므로 각각 다른 조건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자체 핵무장은 경제제재 감수 여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국내 핵시설 건설 및 핵실험 수행 여부를, 미국 전술핵무기 재배치는 방위비 분담 증가, 거주지 인근 전술핵무기 배치 수용 여부를 문항으로 구성했다.

조사 결과, 한국인 다수는 경제제재, 미군 철수, 핵시설 건설 등 잠재 비용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핵무장을 지지했다. 경제제재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 자체 핵무장 지지는 68.1%로 8.1%p 감소했고, 이는 2022~2023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점차 높아진 안보 불안과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 약화가 그 원인인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제시했을 때는 자체 핵무장 지지가 59.2%로 17%p 감소해, 여전히 다수가 지지했으나 경제제재 대비 더 큰 폭으로 줄었다.

표 1. 자체 핵개발에 대한 여론 (%)

	지지	반대
전체	76.2	23.8
C1. 경제제재	68.1 (-8.1p)	31.9
C2. 주한미군 철수	59.2 (-17p)	40.8
C3. 핵시설 건설 및 핵실험	57.2 (-19p)	42.8

다음으로 핵개발 및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과 핵실험 수행에 따른 위험을 조건으로 제시한 경우에는 지지 비율은 57.2%였다. 이는 위의 다른 조건보다 더 큰 19%p 하락을 보였는데, 한국인은 경제제재보다 물리적 시설 건설이나 핵실험 등을 과 같은 구체적 비용을 더 크게 받아들인 셈이다. 이 문항은 2025년 조사에서 처음 도입한 것으로, 그간 추상적으로 논의돼 온 핵무장에 따른 잠재 부담을 보다 실질적으로 인식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위 조건부 문항을 이용한 이번 조사는 기존에 대체로 높은 지지로만 해석돼 온 핵무장 여론의 강건성을 검증한 유의미한 시도다. 북핵 위협 지속과 미국 확장억제 신뢰 약화라는 구조 변수가 국내 핵무장 지지 여론을 강화하고 있으나, 핵무장 비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경

우에 지지율이 일정 수준 하락한 결과는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따라서, 향후 핵무장 정책 논의에는 이 같은 조건 민감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 전술핵무기 재배치 여론

미국 전술핵무기 배치는 1991년 철수한 미국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자는 안으로, 두 가지 조건에 따라 지지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먼저 방위비 추가 분담 조건은 미국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지지가 51.4%까지 감소(14.9%p ↓)하며 찬반 비율이 반반으로 나뉘었다(반대: 48.6%).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동맹국에 대한 비용 분담 요구가 커질 가능성을 반영한 결과로, 전술핵 재배치가 추진될 경우 한미 간 방위비 협상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을 시사한다. 단순히 핵무기 재배치에 대한 긍정 반응을 넘어, 구체적 부담 비용을 제시했을 때 여론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은 유럽 사례와 유사했다. 실제 독일, 이탈리아 등 미국 전술핵무기를 자국 내 배치한 국가에선 다수 응답자가 전술핵무기 철수를 더 원했다.

표 2. 미국 전술핵무기 재배치에 대한 여론 (%)

	지지	반대
전체	66.3	33.7
C4. 방위비 추가 분담	51.4 (-14.9p)	48.6
C5. 전술핵 거주지 배치	39.7 (-26.6p)	60.3

전술핵 거주지 배치 조건의 경우, 미국 전술핵무기 재배치에 대한 지지가 26.6%p 감소하며 39.7%까지 떨어졌다. 지지 비율이 과반 이하가 되며, 유일하게 반대(60.3%)가 지지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17년 성주 사드(THAAD) 배치 과정에서 드러난 지역 갈등과 유사하다. 과거 미국 전술핵무기가 배치됐던 군산, 재배치가 이뤄진다면 유력 후보지인 오산이 위치한 지역 표본 내 지지는 각각 26.2%, 36.1%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표본 수가 적어 해석에 유의해야 하지만,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 시 지역 갈등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가 있다.

미국 전술핵 재배치는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핵무장 방안이다. 그러나 구체적 비용 조건을 제시했을 때, 지지를 철회한 비율은 상당했다. 전술핵 재배치에 대체로 긍정적이거나, 누가 비용을 분담하고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배치할지에 대해선 민감하게 반응한 셈이

다. 따라서 향후 재배치 지역과 관련해 해당 지역 주민의 수용성은 장애 요인이 될 수 있고, 비용 부담 문제도 한미 간 협의에서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결론: 정책적 함의

첫째, 한국인의 핵무장 지지는 과거보다 견고한 양상을 띤다.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가 약화하고 북핵 위협이 고조된 환경 속에서 핵무기 보유의 안보적 이익이 잠재 비용보다 높다는 인식은 뚜렷했다. 어떤 방식이든지 한국인의 핵무장 지지 기저에는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핵 억제력 확보에 대한 열망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한국인의 핵무장 지지는 추상적 비용보다 구체적이고 체감 가능한 조건에서 크게 바뀌었다. 자신의 거주지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조건에는 26.6%p가 지지를 철회했다. 이는 핵무장 실행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의 단면을 보여준다. 국가 안보라는 대의가 지역 현실 앞에서 크게 힘을 잃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관련 정책 추진 시 지역사회 설득과 공감 확보 즉 '사회적 합의' 형성은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셋째, 자체 핵무장 추진 시 감수할 누적 비용 즉 국제 제재, 미군 철수, 시설 건설, 핵실험, 방위비 부담 등을 고려하면, 미국 전술핵 재배치는 상대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안일 수 있다. 이번 조사는 각 조건을 개별적으로 물었으나, 실제 핵무장의 여파는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선 다양한 비용 시나리오를 적용한 실증 연구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상시 배치가 아닌 위기상황 발생 시 수용 가능한 저장 시설과 같은 연성 배치는 주민 반발을 줄이면서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절충안이 될 수 있다. 향후 이러한 방식을 선호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비용까지 수용 가능한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것은 구체적 정책 설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인에게 핵무장은 가시적 비용을 감수할 만한 북핵 대응 방안으로 간주되고 있다. 물론 이 인식은 안보 상황, 국내 정치, 미국의 동맹 전략 등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따라 요동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조건을 제시한 핵무장 여론 조사에서 한국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지지를 보였다는 점은 유의할 만하다. 향후 국내 핵무장 여론의 내구성과 조건별

변화 양상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정책 논의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저자

피터 리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지역연구센터 연구위원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인도-태평양 안보, 미국 동맹체제, 중견국 외교 등이다. 호주 시드니대학교 미국학연구소 외교안보센터 연구위원 그리고 멜버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국제교류재단 연구위원을 역임했다. 최근 연구 저서로는 “한미 방위산업협력에서 상호 신뢰와 열망의 조화” (아산 이슈브리프 2024년 5월), “미국 동맹국들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 비교” (아산 이슈브리프 2024년 3월), “인도태평양지역 다극체제 미래와 한국의 국력” (시드니대 미국학연구소 2024년 2월), “왜 미국 해군력은 아시아 동맹국이 필요한가” (워온더락 2024년 1월), “호주국방전략서의 주요 내용과 함의” (국방대학교 안보현안분석 2023년 9월)가 있다. 호주 멜버른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 국제관계학 석사학위를 받고, 호주국립대학교에서 전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강충구는 아산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이자 여론조사팀 팀장이다. 대화문화아카데미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재직했고, 현재 통일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 사회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분야는 양적 연구방법, 조사방법론, 서베이(통계)자료 분석 등으로 사회과학분야 측정 문제, 여론과 그 동학에 관심이 있다. 다수의 서베이 보고서를 출판했고, 『한국언론학보』, 『평화연구』 등의 학술지에 연구논문(공저)을 게재했다.

본 글은 영문 이슈브리프의 국문 요약입니다(2025-02).

(“Worth the Squeeze: A Conditions-based Analysis of South Korean Public Support for Nuclear Deterrence”, <https://www.asaninst.org/?p=99418>)